

< '희망찬 2026년, 붉은 말(적토마)의 해를 맞이하며' >

작년까지 메타천 교구장님이시던 체키오 주교님께서 전체 부제들에게 4시간이상 따끈하게 물을 보온하는 보온병을 주셨는데, 그 보온병에 제가 좋아하는 무지개 그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무지개의 맨 위 color는 red color 입니다. 희망찬 2026년 붉은해가 떠오르니 온몸에서 Endorphins, Serotonin, melatonin, dopamine, didorphin 이 분비되고 있는것을 느낍니다.

제가 지난 2개월간 피천득 교수님의 <작은시집>을 그려서 연령회원님들 26명에게 드렸고, 또한 Caritas 우리 성가대원님들을 위하여 26개를 그려서 나눠드렸습니다. 나머지 50여개 더 그려서 전체 교우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피천득 교수님은 1910년 5월29일 출생하셨습니다. 7세때 아버님을 여위고, 10세때에 어머니를 여위셨습니다. 1926년 정확히 100년전에 상해로 유학하셔서 상해 호강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상해로 가신 이유가 그 당시 독립투사이시던 안창호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LA 근교 미국 교회 정원에는 인류의 역사에 크게 기여한 3인, Mahatma Gandhi, 안창호, Martin Luther King, Jr. 세분의 동상이 있고, 그 이유는 한국의 106세 김형석 교수께서 <100년을 살다보니> 라는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 South Korea의 안창호님의 동상이 세워진 LA근교 미국인 교회는, 그곳에서 옛날에 거대한 Farm을 경영하던 미국 지주께서 안창호님이 2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도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감명이 깊었는데, 나중에 유명한 한국 독립 투사가 되심에 감명이 너무 깊어서 그곳 교회에 동상을 세우셨습니다. 피천득님은 1951(6.25당시) 서울대 사범대 교수, 1954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수(1955까지), 1976년 수필집 <수필> 꽃씨와 도둑 <작은시집> 출간, 그외에도 많은 시집을 내셨는데, 1991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 수상하시고, 여러해동안 서울대 문리대 사범대 교수로 계시다가, 2007년 5월25일 타계하셨습니다.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분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1913년 노벨 문학상 받으신 인도의 타골은 일찍이 Chosen(조선)이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라고 얘기했고, 1954년 노벨 문학상 작가 Ernest Hemingway가 그가 쓴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 에서 "희망이 없는 것은 Sin이다" 얘기했습니다.

제가25년전에 Yale대학 역사 교수 Paul Kennedy의 'Preparing 21 century'를 읽고, 1년전쯤에는 LA 교회에서 한 김동길 교수님의 마지막 강론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교회에서 17년이상 영어로 강론 하시는 신부님 말씀이, 1801년 신유박해때 강학회를 통해 이벽, 정약용 그외 다섯분께서 이끄시는 천주교에서 500년간 이어온 양반 상놈 사회제도에 반기를 들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선언하시고, 윤지중등 23명이 순교하셨고, 그때부터 한국이 근대적 사고방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김동길 박사님께서, 17년간 뉴욕에서 강론하신 신부님과 똑같은 얘기를 각각 NYC와 LA에서 강론하십니다. 그 내용인즉, 지구의 인류역사가 지중해에서 Roma가 크게 지배권을 잡은후 Greece가 속해있는 지중해 문화에서 시계방향으로 영국에 가게되고, 그 다음 시계방향으로 미국에 와 있는데, 이후 시계방향이 아시아로 가게된후, 일본은 천황때문에 온 국민이 쇠뇌되어 있고 Red China는 공산주의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을 부정하고 있으니, 지금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한국이 성경의 Good Samaritan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850년 1950년 세계를 주름잡던 영국의 실제 자기들의 본토 넓이는 아주 좁은편입니다.) 또한 김형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 모두가 책을 많이 읽어야하는데 다행이도 작년에 한강작가가 <채식주의자> 로 노벨 문학상을 탄후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책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를 몇일 앞두고 아침 일찍 Fitness Center에서 수영을 끝내고 나오는데, 탈의실에서 처음 만나는 미국분들 3명(Johnn, Edwin, Dale) 에게 'Happy New Year' 서로 인사하며 희망찬 2026 Red Horse New Year를 시작하며, 지난 주일 신부님께서 Holy Family 강론 중, Leo 14교황님께서 친교(Kindness)는 '선교'이다 하셨으므로, 저도 3분께 큰 웃음으로 새해인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새해에는 84세가 되고 교황님 메시지 'kindness is spready Gospel' 을 늘 염두에 두고 새해에 더욱더 스마일을 많이 함으로써 Endorphin, Serotonin, melatonin, dopamine, didorphin들이 더 많이 나오므로, 가장이 계속 큰 스마일을 보여줄때 온가족이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500년전 단군께서 국시를 '홍익인간' 이라 정해주신대로, 우리 모두가 2026년 부터 더 밝게 웃으면서 전 세계에 홍익인간 메시지를 보내며 더욱더 친절하게, Leo 14세의 메시지 Kindness is <선교>를 실천합시다.

1945년 8월15일 해방되기 9개월전에 안창호 독립투사께서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십니다. 피천득 교수님의 <작은시집>책에 11번째 수필 <무악재> 수필의 내용이 안창호님께서 가르치시던 어린애들이 무악재(서대문 형무소 밖 긴 벽돌담을 끼고)를 넘어서 걷는 모습입니다.

희망찬 2026년 우리 한사람 한사람은 한국을 대표하는 Ambassador이며 홍익인간이며 Carita(이웃사랑)이며, Good Samaritan 입니다. 인류역사상 피지배국이 지배국을 bypass한 경우가 2번인데, 피지배국 미국이 영국을, 피지배국 남한이 일본을 bypass 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22세기 계속 지구에 Good Samaritan으로 살도록 노력합시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South Korea 5천만이 Good Samaritan 이 됩시다!!!

< 글: 최승웅 미카엘 부제님 >

주님 공현 대축일

2026년 1월 4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금-9:00 AM 화-금 미사전 목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염기선 베드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이사야서 60,1-6

화답송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후렴.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 2독서 에페소서 3,2.3ㄴ.5-6

복음 환호송 마태 2,2 참조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복음 마태오 2,1-12

성가 입당 487 봉헌 212, 342 성체 163, 497 파견 100

-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이종선(헤레나) - 최세레나&최미카엘
 - 오용덕(헨리코) - 가족
 - 윤재은(베로니카) - 가족
 - 성경숙(아가다) - 성안드레아
 - 민애라 영혼을 위하여 - 김정희(레지나)
 - 황규준(프란치스코) - 황선주(요셉피나)
 - 허복(요한) 허길자(세실리아) - 가족
 - 김중호(베드로) - 가족
 - 정순남 이진화 - 가족
 - 김준호(베드로) 영혼 위하여 - 가족
 - 김경호(베드로) - 한상철(빈첸시오)
 - 조흥수 & 서남애 - 가족
 - 김광희(요셉) 선점환(마리아) - 가족
 - 장인석(미카엘) - 가족
 - 이창억(이냐시오) 길정숙(루시아) - 가족
 - 조승식의 영혼 위하여 - 은식(클라라)

- ★ **미사지향 (생미사)**
 - 이용범 사도 요한 신부님을 위하여 최승웅(미카엘) 윤석로(이냐시오) 부제님 - 박재영(요아킴)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김종화(아가다) - 가족, 대자
 - 이종민 김진희(아우렐리아) 이예원(데오도라) - 가족
 - 최경하(바실라) 가정 김영숙(카타리나) 가정 - 최경하(바실라)
 - 이호용 (프란치스코) 가정 Joseph & Ashley Ho - 허정 (아나스타시아)
 - 황혜선(루시아)의 건강 회복 - 황선주(요셉피나)

-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964(120명)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1/1) 헌금.....\$750(86명)
 - 교무금.....\$820
 - 이용문(12) 한상철(1~2) 이보현(1) 임문수(1) 장수지(10~12)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고, 병, 캔, 깨끗한 종이만 넣어주세요.
 3. 바닥 청소
 4. 성당안의 가전제품, 큰가구, 규격외의 부피가 큰 쓰레기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과 상의후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세요.
 5. 성당건물을 사용한 사람은 나올때 반드시 불을 끄고 문을 잠가주세요.
 6. 성당밖에 담배꽂이를 버리지 마세요.

-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클라라)
 - 곽 율리안나 김삼식(베드로) 김정선(스텔라)

- ★ **빵과 포도주 봉헌**
 - 1/4 & 1/11 윤준희 안드레아 / 구윤미 율리안나
 - 1/18 & 1/25 나채국 제노 / 김민주 이스베리가
- ★ **친교 봉사 일정**
 - 1/18 텃거스 2/15 먼로 3/15 메타천+노스에디슨
 - 4/19 사우스브런스윅 5/17 썸머셋 6/21 에디슨 7/19 올드브릿지
 - 8/16 이스트브런스윅 9/20 피스브릿지 10/18 노스브런스윅

-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장소: 1/11일(주일) 미사후 친교실(대회의실)

- ★ **전례부 확대 월례회의**
 - 일시/장소: 1/18 미사후 친교실(소회의실)
 - 대상: 전례부와 단체장, 제대회와 독서단 봉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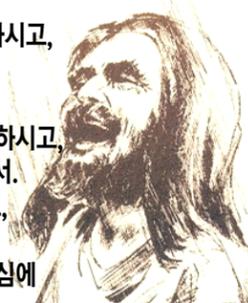
- ★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장소: 1월18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 ★ **변태웅(요셉) 형제님께서 여행사진집 판매 수익금 \$700을 성전보수기금으로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예정된 본당 행사 및 일정 (Upcoming Event)**
 - 02/15/26: 설날 미사

〈 성전보수 기금마련을 위한 기도 〉

주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낙후된 성전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모아,
성전 보수 기금 마련을 준비합니다.
저희의 계획과 수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의 평안으로 이끌어주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금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정성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보금자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 1독서 이사야서 60,1-6**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겨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벽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예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에페소서 3,2.3L.5-6**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마태오2,1-12**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불러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새로운 주교님을 모시기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영원한 대사제이시며,
착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머투천 지역 교회에 내려주소서,
수많은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저희의 제5대 교구장,
제임스 주교님을 보내주소서,
그의 여러 은사를 통해,
백성들을 보살피게 하소서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 머투천 지역 교회를 위한,
새로운 주교 선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교황 레오(프란치스코) 성하게,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시고,
다음 주교님을 선별하시는 과정 중에,
현명한 조언자들이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새로 오실 주교님이,
신성한 스승이신 당신을 더욱 닮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의 다음 주교님이,
당신과 당신의 교회를 향해,
불타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분이 지혜와 충실함,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중부 뉴저지 전역에,
신앙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어머니이자 저희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새로운 주교님과, 그에게 맡겨진 양 떼를,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소서.
당신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